



AI PERSONAL FINANCIAL ROBOARDVISOR

2Q26 년 퇴직연금 보고서

2Q26 년, 퇴직연금 수익률 전국 1 위는 어디?

- 퇴직연금 시장의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와 개인 운용 중심의 성장세
-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 양극화와 증권업 사업자의 약진
- 단기 및 장기 수익률 격차를 가른 실적배당형 상품 자산 배분 전략
- 젊은 가입자일수록 적극적인 실적배당형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퇴직연금 시장도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IRP 중심으로
자금 축이 빠르게 이동

퇴직연금 시장의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와 개인 운용 중심의 성장세

2026 년 2 분기 퇴직연금 시장은 기업이 운용 주체인 확정급여형(DB) 중심에서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IRP 중심으로 자금 축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전체 적립금 553.9 조원 중 DB 형이 224.2 조원(40.5%)을 차지하나, DC 형(163.3 조원)과 IRP(166.4 조원)의 합산 적립금은 329.7 조원(59.5%)에 달해 시장 과반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특히 2 분기 DB 형 적립금 증가율은 1.1%에 그친 반면, DC 형과 개인형 IRP 는 각각 14.0%, 15.8%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는 ETF 와 TDF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활용해 자산을 증식하려는 개인의 수요가 크게 반영된 결과이다.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 양극화와 증권업권의 약진

사업자별로는 시중은행이 전체 적립금의 50.8%(281.5 조원)를 점유하며 1 위를 유지했으나, 점유율은 전 분기(51.9%) 대비 하락했다. 이는 영업망 중심의 은행권에서 ETF 선택지와 수수료 혜택이 우수한 증권사로 가입자 자금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권사는 개인형 IRP 시장 점유율을 1 분기 37.3%에서 2 분기 39.4%까지 크게 끌어올렸다. 특히 DC 형과 개인형 IRP 내 증권사의 원리금 비보장 자산 비중은 각각 76.2%, 73.8%에 달해 원리금 보장 위주인 은행(DC 65.2%, IRP 52.9%)과 대비를 이루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Q26 년 퇴직연금 수익률
확정급여형(DB) 3.5%
확정기여형(DC) 27.4%
개인형 IRP 24.8%

단기 및 장기 수익률 격차를 가른 실적배당형 상품 자산 배분 전략

2Q26 년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분석 결과, 국내외 증시 상승 국면 속에서 DC 형(27.4%)과 개인형 IRP(24.8%)의 수익률이 DB 형(3.5%) 수익률을 크게 앞질렀다.

또한 사업자별로는 원리금 비보장 자산 비중이 높은 증권사 DC 형(40.7%) 및 IRP(34.9%)에서 최고 성과를 거두었다. 개인형 IRP 원리금 비보장 상품 자체의 2Q26 년 수익률은 생명보험(54.5%), 은행(49.4%), 증권사(47.0%) 모두 우수했다. 결국 퇴직연금 수익률 성패는 단순 운용 기술보다 실적배당형 자산의 편입 비중에서 갈렸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10 년 연평균 수익률에서도 DC 형(5.13%)과 개인형 IRP(4.74%)가 DB 형(2.50%)을 앞서는 결과로도 입증된다.

10 년 장기 퇴직연금
Top 10 평균 수익률
원리금 보장 vs 비보장
2.52% vs 8.87%
30 년 운용 시 자산 규모
6.1 배까지 차이

젊은 가입자일수록 적극적인 실적배당형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사업자별 10 년 장기 퇴직연금 TOP 10 연평균 수익률은 원리금 보장형 2.52%, 비보장형 8.87%로 큰 격차를 보인다. 이는 5,000 만원을 10 년간 운용할 경우 원리금 보장형은 6,410 만 원에 머물지만 비보장형은 1 억 1,697 만 원으로 불어나 1.8 배 차이가 난다. 이를 30 년간 투자 시 원리금 보장형은 1 억 534 만 원에 그치는 반면, 비보장형은 6 억 4,023 만 원으로 증가해 자산 규모가 6.1 배까지 벌어진다. 따라서 복리의 스노우볼 효과를 고려할 때, 젊은 가입자일수록 원리금 보장형의 안온함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실적배당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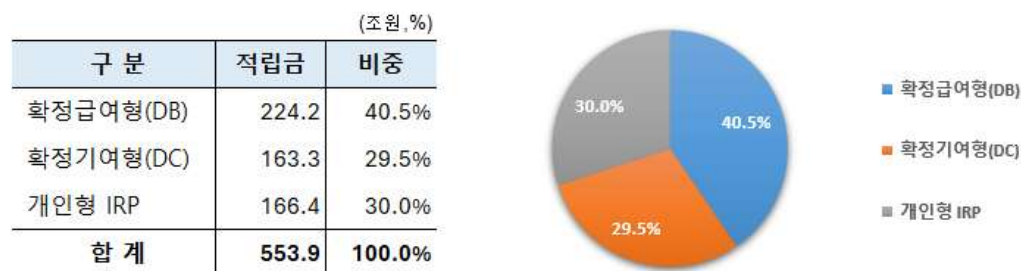
[2Q26 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분석]

퇴직연금 시장이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 형으로
점진적 이동

확정급여형(DB)은 기업이 퇴직급여 운용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전체 적립금(224.2 조원)의 가장 큰 비중(40.5%)을 차지한다. 다만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IRP 를 합산하면 329.7 조원, 59.5%으로 확정급여형(DB)보다 크다.

이는 퇴직연금 시장이 과거의 기업 중심 확정급여형(DB)에서 개인 운용 중심의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IRP 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 년 1 분기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은 221.8 조원에서 → 2 분기 224.2 조원으로 1.1% 증가한 반면,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 는 각각 20.1 조원(+14.0%), 22.7 조원(15.8%)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림 1] 2026 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자료: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 (주)핀릿 리서치센터 취합 및 재구성

실적배당 상품 활용
DC, 개인형 IRP 형
비중 빠르게 증가

이러한 DC 형과 개인형 IRP 의 확대는 ETF-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 활용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 특히 2026 년 들어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한 예로 들어 삼성증권 확정기여형(DC)·개인형 IRP 고객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2026 년 4 월 기준 71%로, 원리금 보장형 비중을 크게 웃돌았고, ETF 비중도 2025 년 1 분기 말 32%에서 2026 년 1 분기 말 50%까지 상승했다는 언론(매경 5/10 일) 보도도 있다.

[표 1] 2026 년,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vs 비보장 적립금 규모

유형	원리금보장	비중	시장성 원리금보장	비중	원리금비보장	비중
확정급여형(DB)	200.8조원	89.6%	0.3조원	0.1%	23.1조원	10.3%
확정기여형(DC)	82.6조원	50.6%	0.7조원	0.4%	80.0조원	49.0%
개인형 IRP	69.6조원	41.8%	2.1조원	1.2%	94.7조원	56.9%

자료: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 (주)핀릿 리서치센터 취합 및 재구성

2Q26 년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원리금 보장형과 비보장형의 규모를 살펴보면, DB 형은 원리금보장 비중이 89.6%로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퇴직급여 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보다 예금, 보험, ELB 등 안정형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DB 형 수익률은 안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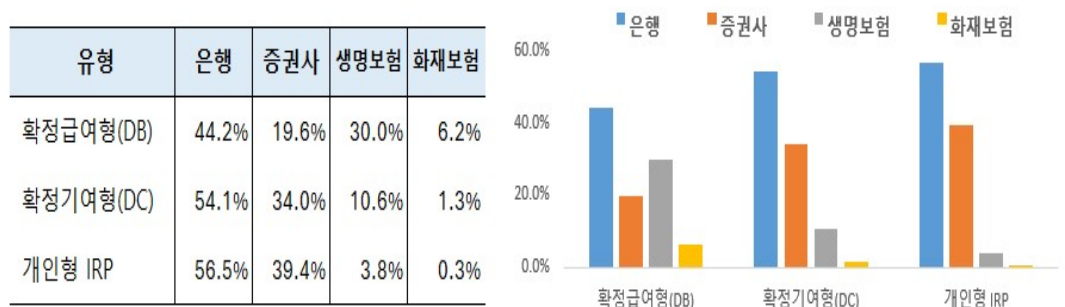
반면 DC 형과 IRP 는 원리금 비보장 비중이 각각 49.0%, 56.9%로 높다. 특히 IRP 는 개인이 직접 상품을 운용하는 성격이 강해 ETF, 펀드, TDF 등을 활용한 투자 비중이 크다. 이 구조 때문에 시장 상승기에는 높은 수익률이 나타나지만, 반대로 시장 하락기에는 손실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와 펀드
적극적 활용

그리고 퇴직연금 유형별 사업자를 살펴보면, DB 형에서는 은행(99.1 조원)과 생명보험(67.3 조원)의 비중이 크다. 이는 기업 단위 퇴직연금 도입 초기부터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계약 기반을 확보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IRP에서는 증권사의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형 IRP에서 증권사는 1분기 시장점유율 37.3%(53.6 조원)에서 2분기에는 39.4%(65.6 조원)까지 확대했는데, 이는 개인 투자자가 연금계좌에서도 ETF와 펀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2026년, 퇴직연금 유형별 사업자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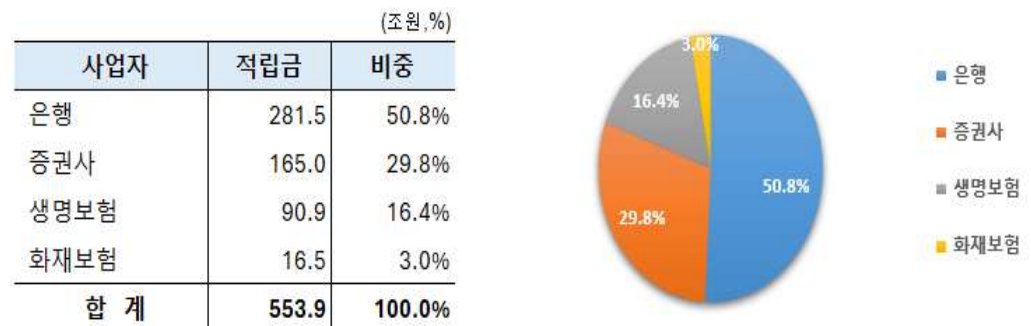
자료: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 (주)핀릿 리서치센터 취합 및 재구성

[2Q26년, 퇴직연금 사업자별 적립금 규모 분석]

퇴직연금 적립금의
50.8% 은행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권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절반(50.8%) 이상인 281.5 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기업 거래 기반, 급여 계좌-주거래 고객 기반, 보수적인 원리금보장 상품 선호, 장기 퇴직연금 영업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은행은 DB 형에서 99.1 조원, DC 형에서 88.4 조원, 개인형 IRP에서 94.0 조원을 보유해 세 유형 모두에서 최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분기 시장 점유율은 지난 1분기 51.9%(261.4 조원)보다 다소 하락하고 있다.

[그림 3] 2026년, 퇴직연금 사업자별 적립금 규모



자료: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 (주)핀릿 리서치센터 취합 및 재구성

증권사는 DC 형과
개인형 IRP에서
존재감

반면, 증권사는 전체 적립금(165.0 조원) 기준으로는 은행보다 작지만, DC 형과 개인형 IRP에서 존재감이 크다. 증권사의 DC 형 적립금은 55.5 조원(1분기 43.4 조원), 개인형 IRP 적립금은 65.6 조원(1분기 53.6 조원)으로 개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ETF, 펀드, 리츠, 채권 등 다양한 투자상품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소 위험을 수반하여도 수익률이 양호한 원금 비보장 자산/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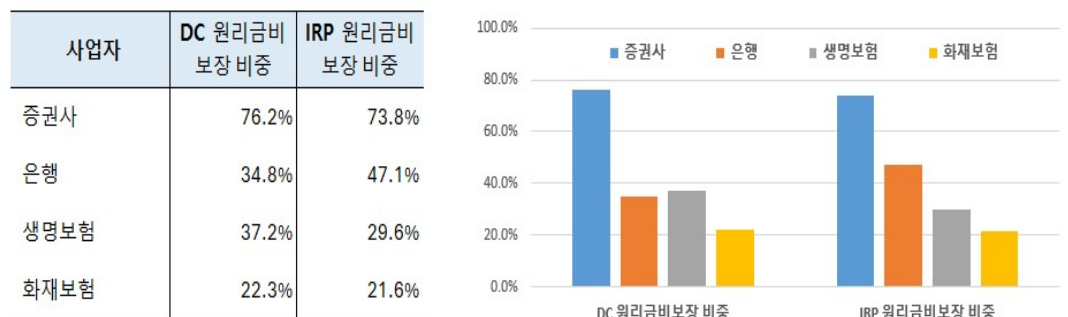
**2Q26 년 증권사
수익률은 원리금
비보장 상품 비중이
높다**

2Q26 년 증권사의 DC형·개인형 IRP 수익률이 높은 핵심 이유는 원리금 비보장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DC형 적립금 중 원리금 비보장 비중이 76.2%, 개인형 IRP 적립금 중 원리금 비보장 비중이 73.8%에 달한다. 따라서 시장 상승기에는 증권사의 수익률이 가장 민감하게 개선된다.

반면, 은행은 DC형과 개인형 IRP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자산 비중이 여전히 높다. 은행의 DC형 원리금 보장 비중은 65.2%, 개인형 IRP 원리금 보장 비중은 52.9%다. 이는 은행 특성상 안정형 고객 비중이 높고, 예금형 상품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은행은 적립금 규모에서는 1위지만 수익률에서는 증권사보다 다소 뒤처지는 상황을 유발한다.

보험권은 장기 저축·연금형 상품 기반이 강한 반면, ETF·펀드 중심의 적극 운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기에 DC형과 개인형 IRP 수익률도 증권사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 4] 2026 년, 퇴직연금 사업자별 원리금 보장 vs 비보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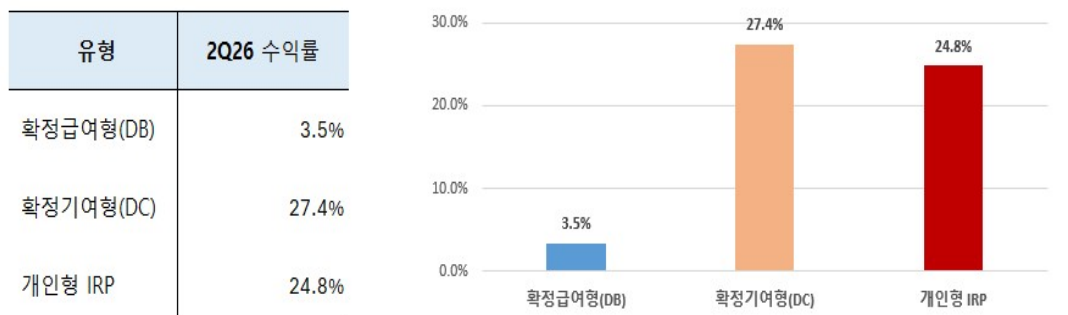
자료: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 (주)핀릿 리서치센터 취합 및 재구성

[2Q26 년,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분석]

**2Q26 년 수익률
DC > IRP > DB**

2Q26 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DC형과 개인형 IRP가 DB형을 크게 앞섰다. 이는 확정급여형(DB)은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이 높고, 안정성을 우선하는 포트폴리오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익률은 예금·ELB·보험형 상품 금리 수준에 가까운 3.5%(연 환산 수익률)대에 머물고 있다.

[그림 5] 2026 년, 퇴직연금 유형별 운용수익률 분석



자료: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 (주)핀릿 리서치센터 취합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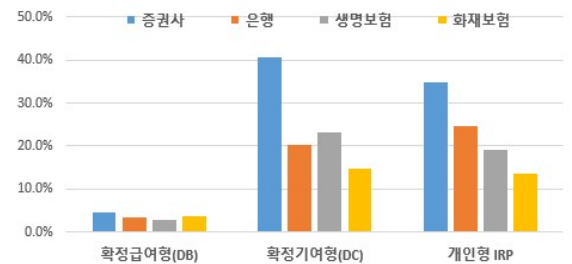
반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IRP는 2Q26년에는 주식형 자산의 성과가 크게 개선되었고, 가입자가 ETF, 펀드, TDF 등 원리금 비보장 상품 등을 직접 투자하며, 편입 비중도 높은 DC형과 개인형 IRP 수익률이 각각 27.4%, 24.8%까지 상승했다.

2분기 국내외
시장 반등 국면에서
효과 반영되며
IRP 등 높은 수익률

2Q26년 퇴직연금 유형별 수익률 분석에서, 증권사는 DC형(40.7%)과 개인형 IRP(34.9%)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증권사의 DC형 원리금 비보장 적립금은 42.3조원으로 DC형 전체 증권사 적립금의 76.2%에 달하고, 개인형 IRP 원리금 비보장 적립금도 48.4조원으로 개인형 IRP 전체 증권사 적립금의 73.8%를 차지한다. 즉, 증권사는 고위험·고수익 자산 편입 비중이 높았고, 2분기 국내외 시장 반등 국면에서 그 효과가 수익률로 크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림 6] 2026년, 퇴직연금 사업자 & 유형별 운용수익률 분석

사업자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
증권사	4.5%	40.7%	34.9%
은행	3.5%	20.2%	24.5%
생명보험	2.7%	23.1%	19.1%
화재보험	3.8%	14.9%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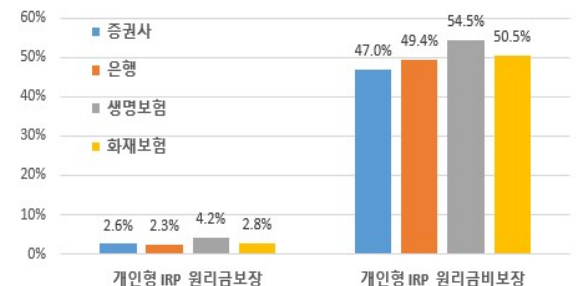
자료: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 (주)핀릿 리서치센터 취합 및 재구성

은행은 전체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크지만, 수익률은 증권사보다 다소 낮다. 은행의 DC형 원리금 보장 비중은 65.2%, 개인형 IRP 원리금 보장 비중도 52.9%로 증권사보다 높다. 이 때문에 시장 상승기에 수익률 탄력은 제한되고 있다. 다만 은행 특성상 안정적 금리형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층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 적립금 유지에는 강점이 있다.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은 전반적으로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높고, 장기 안정성 중심의 상품 구조가 많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개인형 IRP에서는 보험권의 적립금 비중이 미미하기에, 시장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그림 7] 2026년, 퇴직연금 사업자별 원리금 보장 vs 비보장 운용수익률 분석

사업자	개인형 IRP 원리금보장	개인형 IRP 원리금비보장
증권사	2.6%	47.0%
은행	2.3%	49.4%
생명보험	4.2%	54.5%
화재보험	2.8%	50.5%



자료: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 (주)핀릿 리서치센터 취합 및 재구성

흥미로운 점은 2Q26년 개인형 IRP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 자체의 수익률만 보면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 보험권도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특히 생명보험 54.5%, 화재보험 50.5%, 은행 49.4%, 증권사 47.0%로 사업자별로 차이가 크지 않다.

원리금 비보장 상품
보유 비중이
수익률 차이

따라서 개인형 IRP 전체 수익률 차이는 “원리금 비보장 상품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는가”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증권사가 전체 DC·IRP 수익률에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낸 이유는 원리금 비보장 상품 자체의 성과가 압도적으로 좋아서라기보다, 해당 상품 비중이 다른 사업자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반면 2Q26 년 개인형 IRP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의 수익률은 증권사 2.6%, 은행 2.3%, 생명보험 4.2%, 화재보험 2.85%로 예금이나 국채 수익률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는 부합하나 중,장기적인 퇴직연금 목표 수익률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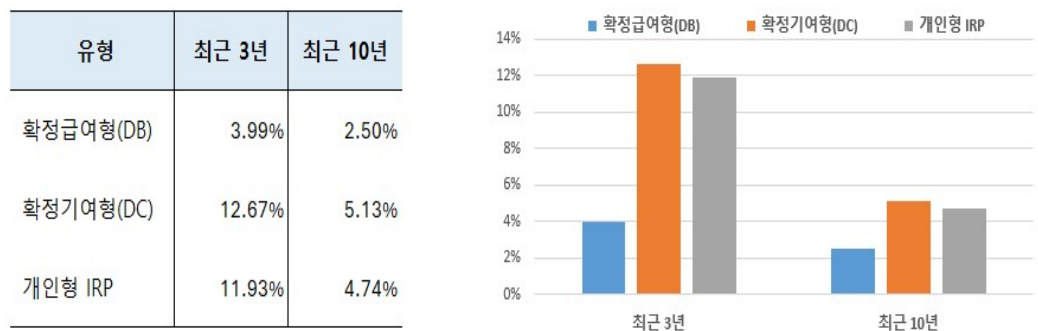
따라서 투자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기반의 자산배분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 최근 3년 및 10년 장기 수익률 분석]

퇴직연금 유형별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에서도 DC 형과 개인형 IRP가 DB 형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인다. DB 형의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은 3.99%, 10년 수익률은 2.50%로 안정적이지만 예금 금리나 국채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DC 형은 최근 3년 12.67%, 10년 5.13%, 개인형 IRP는 최근 3년 11.93%, 10년 4.74%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이며 꾸준한 수익률 보이고 있다.

[그림 8] 퇴직연금 유형별 3년 및 10년 수익률 현황



자료: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 (주)핀릿 리서치센터 취합 및 재구성

퇴직연금 장기성과도 자산배분 구조의 차이에서 발생

이러한 장기 성과 차이는 자산배분 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DB 형은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이기 때문에 금리 수준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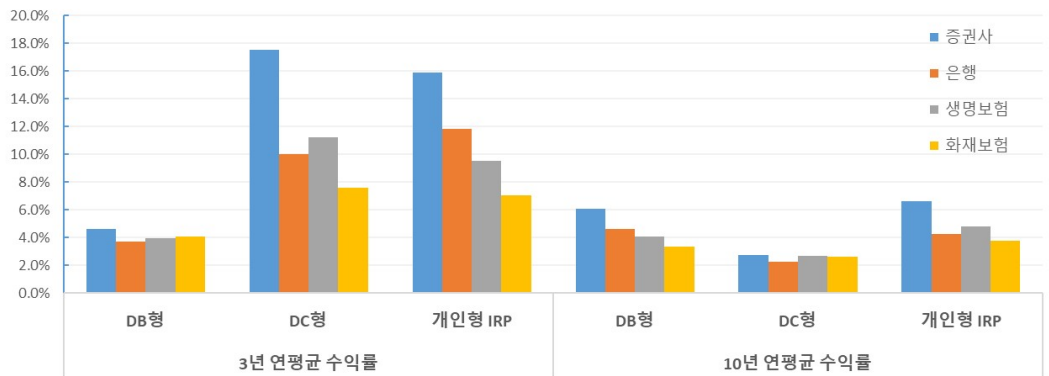
반면 DC 형과 개인형 IRP는 주식형 펀드, ETF, TDF 등 위험자산 편입이 가능하고,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증시 및 국내 증시 상승 구간에서 그 효과가 누적된 결과이다. 실제로 퇴직연금 내 ETF와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는 이러한 구조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3년, 10년 사업자별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에서도 원리금 비보장 상품 비중이 높은 증권사의 우위가 뚜렷하다. 증권사는 DC 형 3년 연평균 수익률 17.52%, 개인형 IRP 3년 수익률 15.92%로 가장 높다. 10년 기준으로 DC 형 6.65%, 개인형 IRP 6.10%로 은행, 보험 등 다른 사업자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이는 단기 성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증권사 퇴직연금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으로도 실적배당형 상품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며, 중, 장기적으로 주식 등 실적 배당형 상품의 리스크 대비 리턴이 더 높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은행은 규모 면에서는 증권업 등 여타 사업자보다 절대 우위지만 장기 수익률은 중간 수준에 그친다. 은행 DC 형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4.27%, 개인형 IRP 10년 수익률은 4.62%로 증권사보다 낮다. 이는 은행 고객 기반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9] 퇴직연금 사업자별 3년 및 10년 장기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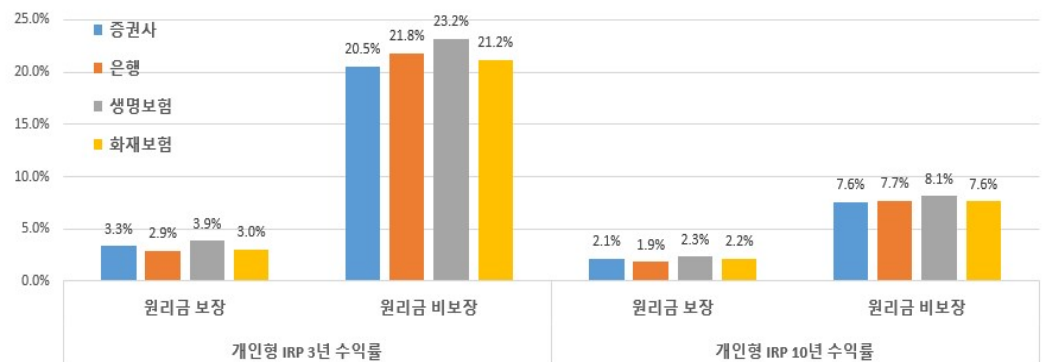


자료: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 (주)핀릿 리서치센터 취합 및 재구성

퇴직연금 3년, 10년
중장기 수익률도
원리금 비보장 상품
압도적 우위

퇴직연금 3년, 10년 장단기 수익률 분석에서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수익률 우위가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개인형 IRP 3년 연평균 수익률에서 원리금 비보장 상품은 사업자별로 20.5%~23.2%의 높은 성과를 기록하며, 동 기간 2.9%~3.9%에 머문 원리금 보장 상품을 크게 앞지른다. 이러한 성과 격차는 10년 장기 운용에서도 이어져,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7.6%~8.1%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원리금 보장 상품은 1.9%~2.3% 수준에 그침에서 알 수 있다.

[그림 10] 퇴직연금 개인형 IRP 원리금 보장 vs 비보장상품 3년 및 10년 장기 수익률



자료: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 (주)핀릿 리서치센터 취합 및 재구성

퇴직연금 장기성과도
자산배분 구조의

이러한 결과는 퇴직연금과 같은 장기 자산 운용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을 고집할 경우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 자산 가치가 보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10년 수익률 기준 원리금 보장형의 평균 수익률(약 2% 안팎)은 장기 복리 효과를 기대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므로,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위험자산이 편입된 실적배당형(원리금 비보장) 포트폴리오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퇴직연금은 안정성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적, 배당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

따라서 개인형 IRP 가입자는 단기적인 원리금 보장 안정성에만 의존하기보다 운용 기간과 위험 감내도에 맞춰 원리금 비보장 자산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장기 운용일수록 주식·펀드 등 위험자산 편입에 따른 수익률 개선 효과가 뚜렷해짐으로, 은퇴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긴 가입자일수록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 위험이 수반되므로, 각 사업자별 운용 역량과 상품 라인업을 비교·분석하여 체계적인 자산 배분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Q26 년, 퇴직연금 사업자/유형별 적립금 규모 Top 10 분석]

2Q26 년 퇴직연금 총적립금 규모 Top 10 사업자는 신한은행(58.9 조원)과 삼성생명(57.4 조원), KB 국민은행(53.5 조원)이 상위권을 형성한 가운데, 제도 유형별로 주도 업종과 사업자가 명확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첫째, DB 형(확정급여형)은 대형 사업장 영업 네트워크와 안정적인 확정금리 운용 역량을 앞세운 삼성생명이 43.6 조원으로 독보적 1 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나은행(18.5 조원)과 신한은행(18.0 조원)이 뒤를 잇는다.

둘째, DC 형(확정기여형)은 ETF와 실적배당형 상품 라인업이 풍부한 미래에셋증권이 23.8 조원으로 선두에 올랐고, KB 국민은행(17.7 조원)과 신한은행(17.4 조원), IBK 기업은행(16.4 조원)이 추격하는 구도이다.

셋째, 개인형 IRP는 리테일 기반과 모바일 플랫폼 접근성이 뛰어난 신한은행(23.5 조원)과 KB 국민은행(23.0 조원)이 최상위권을 다투는 가운데, 비대면 수수료 전액 면제와 투자 편의성을 내세운 미래에셋증권(22.5 조원)과 하나은행(19.7 조원) 등이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표 2] 2Q26 년, 퇴직연금 사업자/유형별 적립금 TOP 10 분석

순위	총적립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	
	사업자	조원	사업자	조원	사업자	조원	사업자	조원
1	신한은행	58.9	삼성생명보험	43.6	미래에셋증권	23.8	신한은행	23.5
2	삼성생명보험	57.4	하나은행	18.5	KB국민은행	17.7	KB국민은행	23.0
3	KB국민은행	53.5	신한은행	18.0	신한은행	17.4	미래에셋증권	22.5
4	하나은행	53.2	현대차증권	15.5	IBK기업은행	16.4	하나은행	19.7
5	미래에셋증권	52.0	IBK기업은행	13.0	하나은행	15.0	우리은행	13.5
6	우리은행	34.0	KB국민은행	12.8	삼성증권	11.3	삼성증권	12.8
7	IBK기업은행	33.4	NH농협은행	12.7	삼성생명보험	9.4	한국투자증권	10.8
8	NH농협은행	28.6	우리은행	11.5	우리은행	9.0	NH농협은행	7.8
9	삼성증권	28.1	교보생명보험	9.7	NH농협은행	8.2	NH투자증권	5.0
10	한국투자증권	26.4	한국투자증권	7.6	한국투자증권	7.9	삼성생명보험	4.3

자료: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 (주)핀릿 리서치센터 취합 및 재구성

[2Q26 년, 퇴직연금 사업자/유형별/원리금 보장 vs 비보장 운용 수익률 Top 10 분석]

2Q26 년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현황은 적립금 규모와 수익률 간의 뚜렷한 디커플링을 보여준다. 총적립금을 주도하는 대형 시중은행이 안정성에 치중한 반면, 수익률 상위권은 뛰어난 금리 경쟁력을 보유한 보험사와 자산 배분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간 중소형 금융사들이 독식하였다.

탄력적인 자산배분으로
노후 자산의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 필요

특히 비보장형 수익률이 보장형 대비 최대 수십 배 이상 치솟으면서 실적배당형 중심의 자산 운용 필요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가입자는 단순히 사업자의 적립금 규모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산 리밸런싱과 고수익 상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노후 자산의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2Q26 년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시장은 안정적인 이율보증형 상품(GIC) 제공 능력과 고금리 채권 운용 역량을 지닌 보험사와 일부 중소형 증권사가 상위권을 석권한 구조이다.

DB 형에서는 교보생명(3.76%)의 수익률로 1 위에 올랐으며, 현대차증권(3.74%), 한화생명(3.58%), 아이비케이연금보험(3.53%)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DC 형은 아이엠증권이 3.66%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고, 아이비케이연금보험(3.55%), 삼성생명(3.45%)이 뒤를 이었다.

[표 3] 2Q26 년, 퇴직연금 사업자/유형별/원리금 보장 상품 운용 수익률 TOP 10 분석

순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	
	사업자	수익률	사업자	수익률	사업자	수익률
1	교보생명보험	3.76	아이엠증권	3.66	삼성생명보험	4.61
2	현대차증권	3.74	아이비케이연금보험	3.55	아이비케이연금보험	3.43
3	한화생명보험	3.58	삼성생명보험	3.45	동양생명보험	3.28
4	아이비케이연금보험	3.53	푸본현대생명보험	3.26	신영증권	3.21
5	삼성화재해상보험	3.47	한화생명보험	3.24	대신증권	3.13
6	신영증권	3.41	DB생명보험	3.24	한국투자증권	3.09
7	흥국생명보험	3.40	동양생명보험	3.24	DB생명보험	3.02
8	푸본현대생명보험	3.39	교보생명보험	3.23	한화투자증권	3.02
9	하나증권	3.38	미래에셋생명보험	3.15	교보생명보험	3.00
10	롯데손해보험	3.38	신영증권	3.11	한화생명보험	2.96

자료: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 (주)핀릿 리서치센터 취합 및 재구성

개인형 IRP의 경우 삼성생명이 4.61%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1위를 차지했으며, 아이비케이연금보험(3.43%), 동양생명(3.28%)이 2, 3위에 올랐다.

보험업권은 장기 만기 채권 자산운용 및 금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증권사는 금리 우위 상품 유치를 통해 보장형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시중은행은 고금리 경쟁 축소 및 수신 금리 하락 여파로 보장형 Top 10 진입에 실패하였다.

반면 2Q26 년 원리금 비보장형 시장에서는 일부 보험사 및 지방은행의 집중적인 자산 재편과 글로벌 증시 호조가 맞물려 폭발적인 수익률이 연출되었다.

DB 형에서는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이 141.92%라는 경이로운 성과로 1위를 기록했고, DB 생명(68.74%), 광주은행(60.73%), BNK 경남은행(48.37%)이 상위권에 랭크되었다.

DC 형은 신한라이프생명이 111.17%로 선두에 섰으며, 아이비케이연금보험(76.98%), 푸본현대생명(73.80%), 아이엠증권(66.24%)이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개인형 IRP에서는 BNK 부산은행이 68.80%로 전 금융권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아이비케이연금보험(68.42%), 광주은행(66.68%), 삼성생명(61.34%)이 뒤를 바짝 추격하였다.

특정 고수익 펀드 집중 배치 및 AI 기반 리밸런싱 전략을 도입한 중소형 보험사와 지방은행이 증시 상승장에서 자산 증식 효과를 극대화하며 대형사를 압도하였다.

[표 4] 2026 년, 퇴직연금 사업자/유형별/원리금 비보장 상품 운용 수익률 TOP 10 분석

순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	
	사업자	수익률	사업자	수익률	사업자	수익률
1	아이비케이연금보험	141.92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11.17	BNK부산은행	68.80
2	DB생명보험	68.74	아이비케이연금보험	76.98	아이비케이연금보험	68.42
3	광주은행	60.73	푸본현대생명보험	73.80	광주은행	66.68
4	BNK경남은행	48.37	아이엠증권	66.24	삼성생명보험	61.34
5	iM뱅크 (구 대구은행)	34.75	현대차증권	66.12	NH농협은행	59.69
6	유안타증권	32.41	BNK부산은행	65.08	흥국생명보험	58.81
7	BNK부산은행	29.04	KB손해보험	61.67	iM뱅크 (구 대구은행)	58.23
8	IBK기업은행	28.48	삼성생명보험	61.35	한국산업은행	57.98
9	신영증권	26.63	KB증권	60.13	교보생명보험	55.85
10	NH농협은행	25.04	광주은행	57.87	하나증권	54.91

자료: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 ㈜핀릿 리서치센터 취합 및 재구성

[퇴직연금 사업자/유형별/원리금 보장 vs 비보장 10 년 장기 연평균 운용 수익률 Top 10 분석]

퇴직연금 10 년 장기 운용 연평균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원리금 비보장형 수익률(최대 10~13%대)이 원리금 보장형(2~3%대)을 3~4 배 이상 크게 앞지르며 복리/스노우 볼 효과를 입증하였다.

사업자 관점에서는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이 보장형 전 유형 1 위와 DB 비보장형 1 위를 동시 달성하며 독보적인 운용 역량을 나타냈다. 또한 대형 시중은행이 적립금 규모를 독점하는 시장 구조와 달리, 실질 수익률 상위권은 뛰어난 금리 경쟁력을 지닌 보험사와 자산 배분 전략에 강점을 보인 증권사 및 지방은행이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입자는 노후 자산의 실질 가치 방어를 위해 원리금 비보장 중심의 적극적인 자산 배분과 운용 역량이 검증된 사업자 선택이 필수적이다.

[표 5] 퇴직연금 사업자/유형별/원리금 보장 상품 10 년 운용 수익률 TOP 10 분석

순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	
	사업자	수익률	사업자	수익률	사업자	수익률
1	아이비케이연금보험	3.03	아이비케이연금보험	2.93	아이비케이연금보험	2.86
2	흥국생명보험	2.97	푸본현대생명보험	2.85	푸본현대생명보험	2.55
3	KB증권	2.76	아이엠증권	2.85	신영증권	2.51
4	미래에셋생명보험	2.70	DB생명보험	2.74	DB생명보험	2.50
5	롯데손해보험	2.70	미래에셋생명보험	2.69	신한투자증권	2.49
6	푸본현대생명보험	2.69	롯데손해보험	2.69	동양생명보험	2.47
7	NH투자증권	2.66	동양생명보험	2.67	흥국생명보험	2.46
8	교보생명보험	2.66	한화생명보험	2.65	한국투자증권	2.45
9	대신증권	2.65	한국투자증권	2.64	대신증권	2.44
10	신한투자증권	2.61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63	KB증권	2.42

자료: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 ㈜핀릿 리서치센터 취합 및 재구성

10 년 장기 원리금 보장형 시장은 장기 금리 경쟁력과 안정적인 자산·부채 관리(ALM) 노하우를 확보한 연금전문 보험사와 중소형 증권사가 상위권을 석권한 구조이다.

DB 형에서는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이 3.03%의 연평균 수익률로 1 위를 기록했으며, 흥국생명(2.97%), KB 증권(2.76%), 미래에셋생명(2.70%), 롯데손해보험(2.70%)이 그 뒤를 이었다.

DC 형 역시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이 2.93%로 선두에 섰고, 푸본현대생명(2.85%), 아이엠증권(2.85%), DB 생명(2.74%) 순으로 상위권을 형성하였다.

개인형 IRP 에서도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이 2.86%로 전 유형 1 위를 싹쓸이한 가운데, 푸본현대생명(2.55%), 신영증권(2.51%), DB 생명(2.50%)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보장형 상품 특성상 높은 만기 이율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명·손해보험업권이 압도적 강세를 보인 반면, 주요 대형 시중은행들은 수신 금리 한계로 TOP 10 진입에 실패하였다.

[표 6] 퇴직연금 사업자/유형별/원리금 비보장 상품 10 년 운용 수익률 TOP 10 분석

순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	
	사업자	수익률	사업자	수익률	사업자	수익률
1	아이비케이연금보험	13.45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0.82	NH투자증권	10.35
2	광주은행	7.37	아이비케이연금보험	10.06	광주은행	9.58
3	하나증권	7.03	하나증권	9.55	아이비케이연금보험	9.41
4	BNK경남은행	6.54	KB손해보험	8.96	BNK부산은행	9.04
5	유안타증권	6.35	삼성생명보험	8.87	삼성생명보험	8.50
6	BNK부산은행	6.35	KB증권	8.83	신한투자증권	8.45
7	DB생명보험	6.01	BNK부산은행	8.82	교보생명보험	8.40
8	iM뱅크 (구 대구은행)	5.74	NH투자증권	8.82	동양생명보험	8.34
9	교보생명보험	5.42	교보생명보험	8.71	NH농협은행	8.34
10	KB국민은행	5.39	BNK경남은행	8.70	KB증권	8.30

자료: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 (주)핀릿 리서치센터 취합 및 재구성

반면, 10 년 장기 원리금 비보장형 시장은 차별화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과 우수한 실적배당형 펀드 운용 역량을 입증한 증권사, 전문 보험사, 그리고 지방은행들이 상위권을 분점하고 있는 양상이다.

DB 형에서는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이 13.45%라는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수익률로 1 위를 차지했으며, 광주은행(7.37%), 하나증권(7.03%), BNK 경남은행(6.54%)이 상위권에 포진하였다.

DC 형은 신한라이프생명이 11.00%에 육박하는 10.82%로 최고 성과를 거두었고, 아이비케이연금보험(10.06%), 하나증권(9.55%), KB 손해보험(8.96%)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였다.

개인형 IRP에서는 NH 투자증권이 10.35%로 증권업계의 자존심을 지키며 1 위에 올랐으며, 광주은행(9.58%), 아이비케이연금보험(9.41%), BNK 부산은행(9.04%)이 차례로 우수한 성과를 내며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장기 투자 과정에서 ETF 및 글로벌 주식형 자산 비중을 정교하고 유연하게 조절해 온 중소형 증권사와, 자산 배분 모델 및 차별화된 리밸런싱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방은행 및 연금전문 보험사의 고도화된 운용 노하우가 탁월한 장기 수익률 제고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10년 장기 퇴직연금 TOP 10의 연평균 수익률은 원리금 보장형은 2.52%, 원리금 비보장형은 8.87%로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이해를 돕기 위해 5,000만원의 초기 자금에 적용해 설명해 보면 장기 복리가 만드는 스노우볼 효과의 가공할 위력이 명확히 드러난다. 10년 운용 시 원리금 보장형은 원금 5,000만원 6,410만원, 누적 수익률 28%에 그치지만, 원리금 비보장형은 1억 1,697만원, 수익률 134%로 불어나 원금의 2배가 넘는 성과를 거두며 원리금 보장형 상품 대비 1.8배 더 높은 자산을 형성한다.

이러한 성과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의 격차를 폭발적으로 넓혀놓는다. 동일한 조건으로 30년간 장기 투자를 이어갈 경우, 원리금 보장형은 1억 534만원(누적 수익률 111%)에 머물지만 원리금 비보장형은 무려 6억 4,023만원(누적 수익률 1,180%)이라는 거대한 자산으로 불어난다.

두 선택의 결과가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무려 6.1배라는 압도적인 격차로 벌어지는 것이다. 시간이라는 강력한 촉매와 복리 효과가 결합할 때, 연 1~2%p의 작은 수익률 차이는 은퇴 시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가 된다.

따라서 투자의 시간 지평이 길게 남아있는 젊은 가입자일수록 단기적인 원리금 보장 상품의 안온함과 평안함, 그리고 무관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복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젊은 시기부터 실적배당형 상품과 유연한 자산 배분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자산 증식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퇴직금의 스노우볼을 최대한 크게 굴러 나가는 지혜가 필수적이다.**

핀릿 리서치센터



Analyst 김영진

現 독립리서치 핀릿 대표 & 연구위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 자산운용사
매경, 한경 등 주요 언론사 Best Analyst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자산배분 본부장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실장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대행
NH 투자증권 / LIG 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등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 작성자 금융투자분석사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